



## “유커 잡아라” 9월 무안공항-항저우 정기노선 뜬다

오는 9월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항저우를 오가는 정기노선이 취항한다. 전남도는 기존 중국 장가계·연길, 몽골 울란바토르 정기 노선, 전세계 8개 국제노선과 함께 운항 노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2025년 완공되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서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10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무안-항저우 정기노선 취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중국 항저우 나라다 그랜드 호텔에서 현지 여행·항공업계 관계자와 인문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남도 관광설명회에 참석했다.

관광설명회에는 천광성 중국 저장성 문화방송여유청장과 노타에어서비스, 룽에어 등 항저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 굴지의 여행·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중국과 전남 간 관광 교류 활성화에 기대감을 더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홍보에 이어, 손정권 에이앤디 대표, 저우전성 노타에어서비스 대표와 함께 무안-항저우 정기편 취항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김영록 지사, 노타에어서비스와 주2회 운항 업무 협약

중국 현지 관광설명회 ‘전남·호남 여행상품’ 집중 홍보

중순부터 무안-항저우 정기노선을 주2회 운항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선 무안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베트남, 대만, 몽골 등 다양한 국가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전남 인바운드 여행 1위 기업인 에이앤디에서 전남 전용 3박4일, 호남권 4박5일 여행상품 및 글로벌 남도한바퀴 연계 상품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다.

전남도관광플랫폼(JN TOUR) 어플을 활용한 자유여행 소개도 겸해 패키지 관광 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을 원하

는 중국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7월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 중이거나 운항 예정인 국제선은 베트남 나트랑·달랏·푸꾸옥·다낭, 중국 장가계·연길·여강·오르도스, 몽골 울란바토르 등이다. 국내선은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제주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와 함께 라오스(비엔티안·루앙프라방), 필리핀(마닐라), 중국(상하이) 4개 국가 4개 정기노선 운항을 협의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항저우 정기노선 취항으로 28년간 자매도시로서 깊은 인연을 이어온 전남도와 저장성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 믿는다”며 “항공편을 통해 많은 분이 전남을 방문해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가장 한국스러운 전남의 맛과 멋을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말 기준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20만6천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0만3천명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로 올해 이용객 목표인 50만명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김재정 기자



중국 항저우서 전남관광설명회

지난 9일 오후 중국 저장성 항저우 나라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무안-항저우 정기편 업무협약 등 ‘전남관광설명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현지 여행업계, 언론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민주 당권, 이재명 vs 김두관 ‘맞대결’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만들 것” 출사표

김두관 “대표·대선후보 모두 노? 어리석은 것”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도,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 강화에 대한 당내 ‘침묵하는 표심’이 어떻게 분출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고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세종시의회에서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 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1당으로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고 이 전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의원은 10일에도 CBS 라디오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리더십으로 압승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 KIA 김도영 ‘6월 MVP’...전반기 2번째

KBO 역대 3번째...타이거즈 선수 최초 ‘금자탑’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도영(20)이 KBO 리그 6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 김도영은 올 시즌 전반기에만 2차례 월간 MVP에 이름을 올리는 금자탑을 쌓았다.

김도영의 전반기 MVP 2회 수상은 KBO 리그 역대 3번째다. KIA 전신인 해태를 포함해 타이거즈 선수 중 최초다.

10일 KBO에 따르면 김도영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6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 김도영은 지난 4월 월간 MVP로 선정된 이후 전반기에만 두 번째 수상했다.

김도영은 기자단 투표 30표 중 6표(20.7%)를 얻는데 그쳤으나, 팬 투표에서 50만7천615표 중 48.4%를 받아 총점 345



4점을 획득했다. 2위 키움 김혜성(총점 27.13점)을 여유있게 제치고 최종 1위에 올랐다.

특히 김도영은 1983년(4·5월) 삼미 슈퍼스타즈의 장명부와 1988년(4·6월)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현 투산 베이스 감독) 이후 20년 만에 KBO 전반기 MVP 2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도영은 6월 2경기에서 3안타, 8홈런(2위), 27득점(1위), 장타율 0.681(3위), 출루율 0.488(4위), 안타(공통 9위·32개)를 기록해 KIA의 선두 주자를 이끌었다.

6월 MVP로 선정된 김도영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트로피가 주어지며 신한은행 후원으로 모교인 광주동성중학교에 선수 명의로 기부금 200만원이 전달된다. /주홍철 기자

### Today

- 인터뷰·김이강 광주서구청장 5면
- 고발전으로 비화하는 남구의회 6면
- 최형우 최고령 타점왕도 보인다 16면

###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